

제367회국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19년4월4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3.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 상정된 안건

1.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 1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2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박덕흠·이양수·경대수·이종명·김명연·이철규·문진국·주호영·황영철 의원 발의) ..... 2
3.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 2

(09시28분 개의)

○위원장 이찬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경미 위원님이 사보임 해서 오셨는데 인사말씀 하실래요?

○박경미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찬열 직접 박경미 위원님이 안 하신다고 그래서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 1.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위원장 이찬열 의사일정 제1항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침략 과거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를 2019년 3월 26일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문종 위원 일전에 제가 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능시험에 독도에 관한 문제를 꼭 낸다라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천명해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없는데, 그런 것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만날 이렇게 ‘범국가적으로 총력을 다하여 대응해 나간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구체적인, ‘독도가 우리 것이라고 일본이 인정하는 그날까지 우리 수능시험에 독도에 관한 문제를 꼭 한 문제 넣는다’ 이런 정도 여기다 제안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 독도 문제에 대해서 수능시험에 내라고 그러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 보셨

으면 좋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아니, 뭐 거기에서 내건 안 내 건……

○**위원장 이찬열** 이것은 우리 국내에서 입시 출제위원들께 교육부장관님께서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결의안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약하다고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해 주시는 게 우리 아이들이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다 마음에 드십니까?

○**홍문종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이찬열** 그것은 교육부장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문종 위원** 아니, 저는 여기다 쓰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찬열** 여기다 쓰는 것은 이것은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써 봐야 일본에서 우리 출제하는 데……

○**홍문종 위원** 아니, 우리가 얼마만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여기 교과서니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장 이찬열** 아니, 그것은 지금 좋으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입시 출제위원들 교육부장관님이 나중에 다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 꼭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마 그분들이, 나중에 누가 입시 출제위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만 보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전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의사 전달이 충분히 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님.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 초등 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상정 의결해야 될 건이 있습니다.

교육시설 안전과 관련된 제정법안에 대한 법안소위 공청회에 심사할 안건을 추가하기 위해 의결이 필요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09시34분)

○**위원장 이찬열** 국회법 제59조에서는 위원회 회부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지 않은 제정법률안을 상정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제2항 법률안은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오늘 상정하기로 각 당 간사님들과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박덕흠·이양수·경대수·이종명·김명연·이철규·문진국·주호영·황영철 의원 발의)

**3.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위원장 이찬열**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법안소위 차원의 공청회를 진행하기 위해 제정법률안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전체회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각 당 간사님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현아 의원님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의원**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30년 이상 노후 학교가 34%에 달하는 문제, 주차시설 단가에도

미치지 못해 품질을 기대할 수 없는 저가 학교 공사비의 문제, 23%밖에 진행되지 않은 학교 석면 제거 문제 등 교육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과 환경 부실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부의 기본 방향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교육청별로 각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별·학교별로 시설관리 수준이 달라서 학교 교육환경의 질적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마련한 교육시설에 대한 최소 기준이나 적정 기준도 없는 상황입니다.

화장실, 석면, 운동장 개선공사 등 건건이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 건물 전체에 대한 노후화나 성능검사, 성능향상을 위한 계획도 부재합니다. 더욱이 예방적 접근보다는 사고나 문제가 발생한 이후 사후에 대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예산집행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며 중구난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통합 관리하도록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5년마다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교육시설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시·도교육감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이를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여서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시설에 대한 최소 환경기준을 마련·공고토록 하여 모든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환경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시설안전원을 신설하여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안전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학교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본 개정안의 취지를 잘 검토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 3월 상정한 유사한 내용의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처럼 서면 없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현재 학교시설의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므로 학교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정안의 내용은 이장우 의원, 유은혜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교육시설기본법안,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과 체계 내용이 비슷하므로 이하에서는 차이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 제8조는 최소 생활면적, 안전규격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에 관한 지표로서 최소 환경기준을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시설의 구조적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1조의 안전관리 기준과 달리 교육시설 이용자의 활동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추가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생활환경의 경우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환경위생 등에 관한 기준이 설정되는 상황이고 최소 생활면적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교사 기준 면적, 체육장의 기준 면적 등을 학생수에 따라 산출하고 있어 이 규정들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며, 안전관리기준의 경우 안전성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반면 최저 환경기준의 경우 그 활용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음, 제정안 제23조부터 제25조는 학교안전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동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 기금의 용도로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

는데 이들 사업은 현재 교부금이나 일반회계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칸막이식 운용으로 재정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기금의 재원으로 정부의 출연금 외에 별도의 재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김현아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한다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위원님들께 심도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칠 시간인데 이학재 위원님, 뭐 자료 요청 있다고……

○이학재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건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구리시의 한 혁신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묻는 투표에 전교조 교장을 만들려고 투표 조작이 이루어졌는데 이 투표 조작을 한 사람이 현직 교사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에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먼저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쭙보고 싶은 게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는지 또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또 조사 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한번 여쭙보고 싶고요.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내일모레 공청회 때 그와 관련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인해서 교장선생님이 된 사례하고 그분들의 상세 이력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장공모에 제출했던 제출 서류들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열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찍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이학재 위원 제가 말씀드린 무자격 교장공모로 인해서 교장이 된 선생님들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그 사람들이 있어요? 무자격인데 공모를 통해서……

○이학재 위원 교장공모제가 자격이 없는 분들을 교장 시키는 제도이거든요.

○위원장 이찬열 그러면 법안으로 자격을 만들어야 되겠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교장공모제는 기존에 교장을 승진해서 하는 그런 절차와는 다르게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경로를 열어 놓은 것이고요.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하고 공모절차를 밟아서 학교와 교육청에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다 준수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은 저도 오늘 조간신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어서 저희도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교장공모제가 무자격이라고 하는 그것이 기존과는 다른 트랙으로 교장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무자격자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절차나 과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교육청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철저히 보겠습니다만 교장공모제 자체 제도가 갖는 의미나 이런 것들까지 훼손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최대한 살려야 되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지금처럼 투표 조작을 통해서 억지로 하게 한다든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승진하는 통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찬열 자료 요청 하셨으면 마무리해 주시지요.

그러면……

○서영교 위원 저도 잠깐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사전에 얘기를 안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그러면……

자료 요청입니까, 됩니까?

○서영교 위원 아니요, 교육부장관에게 의견 제안입니다.

○위원장 이찬열 이러면 회의 제목이 달라지지요.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자료 요청이라 제가 특별히 이번에는 저기했는데 3당 간사님들이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만약에 하실 말씀들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간사님들을 통하세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예, 자료 요청 하세요.

○서영교 위원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 고3 무상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상교육·무상급식을 계속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좀 체크를 해 보니까 ‘무상급식이 교육청의 사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데 그 급식이 먹을 만하지 못하다면, 무상급식 때문이 아니라 워낙 학교가…… ‘무상급식인 상황에서도 급식을 하지 않고 도시락을 싸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학부모들께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학생들이 ‘저는 그 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 학교가 가고 싶니?’ 그랬더니 ‘급식이 맛있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먹는 것 아주 중요하고 학교 가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교육부에서 급식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 각 학교의 급식 현황, 급식 질 그리고 아이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랜덤으로든 뭐든. 그렇게 해서 좀 제기하면서 이런 것 한번 체크하겠다……

그리고 어떤 곳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가까운 친인척이 조리장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맛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맞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야기까지 들고 있을 정도니까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이 질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과정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급식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조리실 관계자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 담배도 안 피우는데 폐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가스 불 이런 것도 어떤 그런 것의 한 원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급식실을 만들면서…… 어제 저희 지역에 급식

실을 하나 개관하게 돼서 제가 가게 되었는데, 어떤 예산을 교육부가 줘서 급식실도 개관하게 되고 그래서 어제 갔다가 제가 조리실을 들어가 봤는데 인덕션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화기가 좋을까 이런 걱정을 제가 좀 했는데, 조리사분들은 우선 뜨겁지 않고 데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급식실이나 이런 데는 어떤 조리사들의 환경도 좀 보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어서 그것을 살펴 주고 급식실을 만들면서 그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이렇게 급식실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번에 급식실 급식상황을 체크하시면서 급식실의 기구들도 한번 체크해 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국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돌봄교사들이 자기 아이들을 또 다른 곳에 돌봄을 맡기고 자기가 돌봄교사를 가는데 실제로 4시간 돌봄이 있고 6시간 돌봄이 있고 8시간 돌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교육청과 관계된 일이지는 한데요, 교육부의 지휘가 필요하니까.

4시간 돌봄이 실제로는 5시간, 6시간 일을 하면서, 최악의 급여 체계를 받고 있으면서 어쩌면 돌봄교사들의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번에 제기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상황을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장 이찬열 장관님, 답변하실 것 없을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내용들이 시·도 교육청별로 많이 차이가 있는 사안들이라서……

○서영교 위원 왜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지……

○위원장 이찬열 자료 요청이 하도 많아 갖고……

○서영교 위원 아니, 저희가 오늘 긴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간만에 회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내용과 관계가 돼서……

○위원장 이찬열 그러면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들, 현황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이 결의문 있잖아요. 아까 제가 사실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결의문에 이런 게 좀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독도는 으레 우리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인데요. 그 영상에 보면 역사적으로 독도가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우리의 땅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언제부터 갑자기 중간에 끼어서 자기네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일본과 주장을 하면서 당위적인 주장을 하는데 좀 더…… 교과서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떤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첨부되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아까 또 그래도 결의가 되었으니, 아니면 첨부로 우리의 역사자료가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열 그래서 그 부분도 거론이 됐었는데 우리가 결의문이라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함축해서 큰 내용을 담자 이런 차원에서 결의문이 작성이 됐습니다.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조승래 위원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지요. 홍문종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서영교 위원님도 말씀하시니까 교육부가 독도와 관련된 교육을 현재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다음에 상임위가 열리면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찬열 결의문 관련 사항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의결이 되고.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유은혜 장관님 등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곽상도	김한표	김해영	김현아
박경미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신경민	이찬열	이학재	임재훈
전희경	조승래	홍문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조기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부총리겸장관	유은혜		
기획조정실장	주명현		
고등교육정책실장	김규태		
학교혁신지원실장	김성근		
교육안전정보국장	정종철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진영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2019. 4. 2.
진선미	신경민		